

대·중소기업 신뢰 구축 통한 건설업 활로 모색



2013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건설경제신문사와 건설외주협의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후원한 '2014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정책국장,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진옥 이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에서 정해돈 회장과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사진 좌로부터, (주)성지기공 이영재 부사장, 세일이엔에스(주) 심기석 대표이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 (주)대청엔지니어링 성열구 대표이사]

크레더블 대표 등 건설단체장을 비롯해 수상자 대표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로 세일이엔에스(주)[대표이사 심기석]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주)대청엔지니어링[대표이사 성열구], (주)성지기공[대표이사 이호석]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기업들은 동방선장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불법·부조리, 부실공사 및 불공정하도급 관행

을 뿌리뽑아 건설산업의 잘못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해돈 회장은 “건설산업은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이다”고 언급하며 “발주자, 원·하도급사,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구성원 모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동반성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협력부문
세일이엔에스(주)



심기석 대표이사

‘30년 시공 노하우’ 기계설비업계 선두주자

세일이엔에스는 국내 기계설비공사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강소기업이다. 1970년 세일설비공업사로 창립해 1980년 세일설비로 법인을 전환했으며, 2005년 세일이엔에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계설비공사 부문에서 선두주자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의 거래대금 지급의 경우 현금지급을 원칙을 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재무상황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신뢰와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대처하기 위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도 힘쓰고 있으며 녹색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폐기물 및 용전용수 등의 저감활동과 더불어 정기적인 그린데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최초로 중소기업청의 우수그린비즈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협력부문
(주)대청엔지니어링



성영구 대표이사

기술과 신뢰 ‘밀거름’ ... 연구소 · 공공분야 특화

지난 1989년 설립된 대청엔지니어링은 대전 · 충남을 대표하는 플랜트, 냉난방, 공기조화 등의 기계설비공사 전문업체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 등 국내 주요 원도급업체로부터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회 연속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계룡건설 및 한화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0년과 2013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을 받았다.

회사는 연구소 및 공공부문 시공을 특화했으며 아파트, 공장 분야로 진출을 확대했다. 외형보다는 경영효율을 꾀해 ‘작지만 강한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원자력분야, 연구소 분야 시공을 확대하고, 차세대 사업인 태양열, 태양광, 지열분야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 대신 노사화합 상생 원칙을 적용하는 등 안정된 노사구조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 협력부문
(주)성지기공



이호석 대표이사

‘성실시공’ 기본... 협력사 현금지급 원칙 고수

지난 1985년 설립된 (주)성지기공은 건축부문의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 주상복합 · 공장 · 호텔 · 군부대시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여러 실적을 보유한 기계설비공사 전문건설업체다. 경쟁사와 차별화한 공사관리 및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려개발, 동부건설, 대보건설, 대우건설, 진흥기업 등 국내 주요 원도급사로부터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은 건설사다. 지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개발이 선정한 최우수 협력업체에 뽑혀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2006년에는 SH공사가 수여하는 성실시공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인천광역시장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2010년) 실적도 있다.

성지기공은 매출을 목표로 저가수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협력업체에 공사 및 자재대금의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